

내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1,330억 투입

도는 내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798억원 등 1,330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도는 재해에 안전하면서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벌여 하천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춘천 팔미천을 비롯한 하천 재해예방사업 34곳 44.3km에 1,065억원을 투자한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는 평창강 등 6곳 6.6km 150억

원, 경포천 등을 대상으로 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 6곳 3.1km에도 115억원이 투입된다.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 40곳에도 474억원이 투자된다.

내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방하천은 57.5%, 소하천은 49%가 정비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비의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현대아산, 관광공사 신사옥 공사 수주

현대아산이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관광공사 신축건물 공사를 수주했다.

22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관광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관광공사 신사옥은 본관 (지하1층 ~지상

14층), 교육연구동, 강당, 홍보관 등 총 4개동, 연면적 3만1132㎡ 규모로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오는 2014년 7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아산은 지난 9월 728세대 규모의 원주 혁신도시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등 올해 공공공사 신규수주 1000억원을 돌파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